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06/30~2025/07/06]

2025.07.07

[로봇] 범용보다는 특화

- 테슬라, 중국 부품사發 생산 중단 소식. 일각에서는 3세대 출시 가능성 제기
- 레인보우의 RB-Y1 누적 80대 판매. 하반기에도 50대 추가. 삼성은 누적 35대 구매
- 큐렉소가 드디어 인공관절수술로봇 큐비스 조인트 FDA 인허가 신청

[방산] 잠시 쉬어가는 것

- 1년여만에 현대로템 폴란드 K-2 2차 계약 65억불 확정
- 독일이 장갑차와 전차를 합쳐서 3,500대 조달 계획을 검토 중. 레오파르트 쇼티지 가능성
- 유럽에서 미래형 주력 전차 프로그램인 MARTE 가동

[항공] LCC 기재 도입 현황

- 상반기 국제선 여객 4,600만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 일본과 중국이 효자
- LCC 신기재 및 신노선 취항 속속. 제주항공 737-8 5호기 도입. 에어프레미아는 하와이로
- 진에어 코로나 이후 호황기에 활약한 B777 내년까지만 운용. 소형기 중심 재편

[조선] 조정받는 조선

- 삼성중공업의 FLNG 수주 기대감 확대. 델핀은 기정사실화
- 한국 6월 조선 수주 M/S 41%. 중국과 좁혀지는 격차. 중국에서는 CSSC 산하 1, 2위 합병
- HD현대는 인도로, 삼성중공업은 베트남과 협력 강화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우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로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등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등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등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적인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등 자료는 당시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등 자료는 당시의 등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등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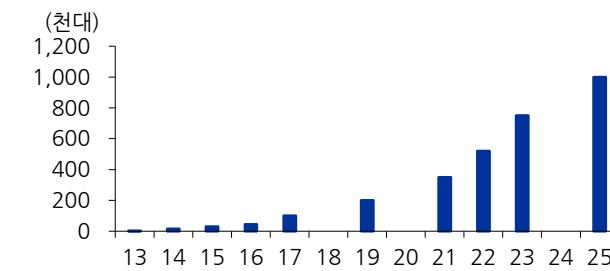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87)

[범용보다는 특화]

- 아마존이 물류 로봇 100만대 도입을 달성. 13년만의 실적. 코로나 이후 로봇 도입 속도 가속. 반대로 인간 노동자 수는 감소 추세. 과거 이동형 로봇 중심의 '다리에 의한 물건 이동 작업'에서 점차 상/하차 및 피스피킹 등 '손/팔을 이용한 물건 이동' 작업으로 자동화 적용 공정 변화되는 중. 향후에도 로봇 사용을 10배 늘려 물류비 감소 추구
- 지금까지 로봇 분야에서는 범용 작업이 가능한 로봇에 주목해왔지만, 실용화 가능하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 한국에서는 조선 용접용 로봇, 도축 로봇, 원전 해체 로봇 등 사람이 기피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할 작업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시도가 이루어지는 중. 로봇 플랫폼은 로봇 팔 혹은 휴머노이드가 될 수 있겠으나, '범용'보다는 특정 산업에 '특화'된 로봇 유형의 보급이 선행될 것으로 예상. 한국은 다양한 제조 분야를 거느리는 만큼,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Key Chart: 아마존 물류 로봇 도입 현황



Weekly Keyword

범용보다는 특화

어느덧 아마존이 보유하는 물류 로봇은 100만대를 넘어섰. 지금 로봇 시장에서는 범용 작업 수행 가능한 로봇에 주목하지만, 현실에서는 특정 작업에 특화된 로봇의 보급이 이루어지는 중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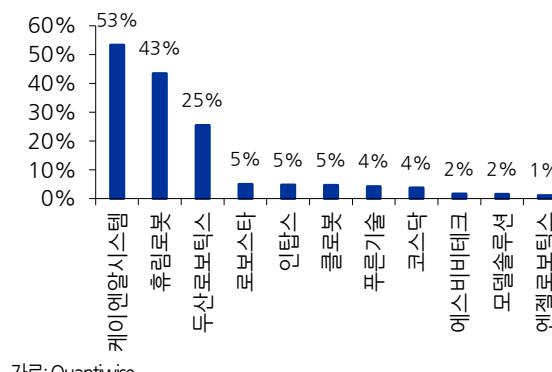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로봇 주요 뉴스(06/30~07/06)

[산업용 로봇]

- 뉴로메카, 포스코와 30억원 규모 로봇 자동화 계약
- 한화 협동로봇, 세계 최초로 '클린룸 클래스1' 인증
- 케이엔알시스템 "원전 해체 로봇 개발 완료"

[서비스 로봇]

- 큐렉소, 수술로봇 美 FDA 인허가 신청
- HD현대삼호, 독일과 조선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 삼성물산·현대건설, 자율주행 자재 운반 로봇 개발
- TXR로보, 전기차 화재대응 로봇·지능형 관제 시스템 개발

[기타(정책/부품/SW)]

- 삼성, 레인보우 '이동형 양팔로봇' 대량 구매
-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 ETF 2종, 순자산 1천억원 넘어

[Global]

- 테슬라, 옵티머스 부품 구매 일시 중단하면서 생산 중단
- 아마존 물류 창고, 100만번째 로봇 도입
- 美 브라이트픽, 다목적 물류 로봇 '오토픽커 2.0' 출시
- 독일 뉴라로보틱스,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4NE1' 공개
- 유니트리, 시리즈 C 펀딩 성공. 기업가치 2.7조원
- 중국 갤봇, 2천억원 투자 유치. 연내 G1 100대 투입
- 중국 1~5월 로봇 분야 투자액, 작년 전체 규모 넘어서
- 두봇, 휴머노이드 아톰 글로벌 공식 출시
- 중서 첫 휴머노이드 축구대회 "5~6세 수준 실력"
- 도쿄대 스타트업 하이랜더스, 휴머노이드 공개. 26년 양산
- 日 파나소닉 에어컨 공정 자동화율 15% → 50%로 확대
- 야스카와, 25년 순이익 -42% yoy 전망. 수요 불확실성 여파



**안녕하세요
방산
위클리예요**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35)

[잠시 쉬어가는 것]

- 기다렸던 폴란드 K-2 전차 수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 전주 대비 11% 하락하며 한 풀 꺾인 모습. 기존에 제시했던 각종 재료(대선 이후 수주 랠리 & NATO 국방비 목표 상향) 소멸 영향으로 판단. 방산 업종은 작년 4분기 및 올해 1분기에 수출 비중 높은 기업 중심으로 압도적인 수익성을 이미 확인했고, 기대했던 조단위 수주 파이프라인이 소진되며 눈높이가 더욱 높아지는 중. 연말이나 내년에 사우디 등 중동발 대규모 수주 기대감 커질 수 있으나, 그 사이 공백 기간이 부담되는 듯
 - 구조적 무기 수요 증가 속 방산의 중장기 성장 방향성은 불변. 당사 전망 자료에서 언급했듯, 방산 수주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함. 나토도 국방비 지출 목표 올렸지만, 실제 온기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 우리 방산업체들의 신규 수주도 차분히 기다려봐야함. 독일 등 주요 방산업체 CAPA가 부족한 것도 변함없는 만큼, 한국 방산의 수주는 시기의 문제일뿐 확도는 높음. 단기적으로는 2Q 실적과 서프라이즈 수주 주시. 2Q 실적은 추정치 소폭 상회/하회의 이슈보다는, 미래 수익성을 올려볼 수 있는 요소(예시: 미사일/탄의 고마진)를 찾아볼 필요

Key Chart: 한국 방산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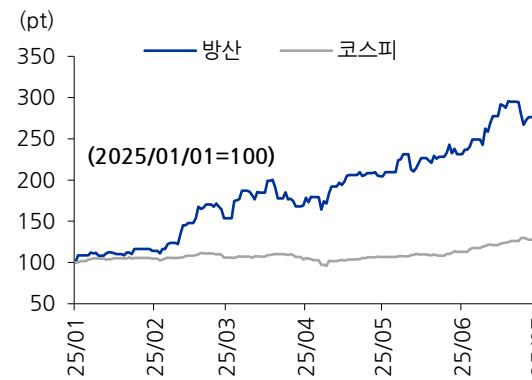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주) 25년은 목표치

Weekly Key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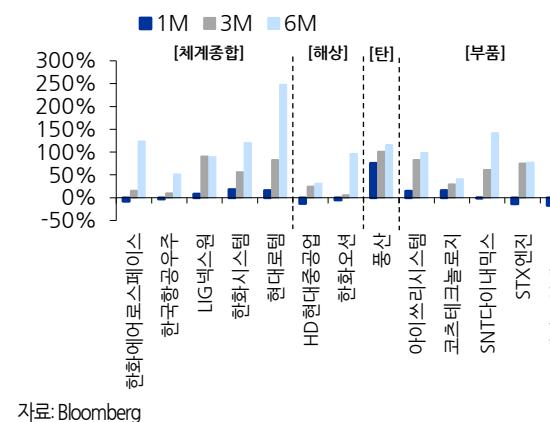
잠시 쉬어가는 것

기다렸던 폴란드 K-2 수주에도 불구하고 재료 소멸로 방산주 조정 세. 중장기 성장 방향성은 불변하나,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모멘텀 찾아 나설 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방산 주요 뉴스(06/30~07/06)

[수주/계약]

- K2 전차, 폴란드에 9조원 수출. 방산 역대 최고액
 - 인니 조종사 KF-21 첫 시험비행 성공, 방산 협력 정상화
 - 2.8조 '천궁-III' 개발 돌입. 한화시스템 vs LIG넥스원 격돌
 - 하화에어로, ADD와 1400만원 엔진 개발 계약 체결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트루키예 방산업체 '아셀산'과 MOU 체결
 - LIG넥스원, 인니와 유도 로켓 공동 생산. 아세안 공략
 - 제노코, 최대주주 KAI로 변경. 지분율 50.22% 확보
 - KAI 자회사 KAEMS, 타이항공 운항정비 시작

[기타]

- **李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 방산협력 강화**
 - 정부, 폴란드 K2 수출금융 지원. 무보 중심에 수은도 참여
 - 안규백 “방산기업, 외인 CEO 선임 시 사전승인 받아야”
 - 방사청, ‘하급형 임차제도’ 설계 착수

글로벌

- 독일, 2,500대 장갑차 및 1,000대 전차 획득 계획 검토
 - 폴란드, 9천억원 투입해 26년까지 포탄 생산 5배 확대
 - 폴란드~핀란드 철의장막 구축. 러 접경국, 지뢰협약 탈퇴
 - 독일, 미국 대신 우크라에 패트리엇 지원 논의
 - 우크라 호소에도 "美, 패트리엇 등 우크라 지원 중단"
 - 푸틴 "전쟁목표 달성 전엔 안돼" 트럼프 휴전안에 퇴짜
 - 유럽, 미래 주력전차 개발을 위한 MARTE 프로젝트 시작
 - 스웨덴, 아처 자주포 보완 위해 궤도식 자주포 도입 계획
 - 일필리핀, 자위대 호위함 중고 거래 합의

안녕하세요

항공 위클리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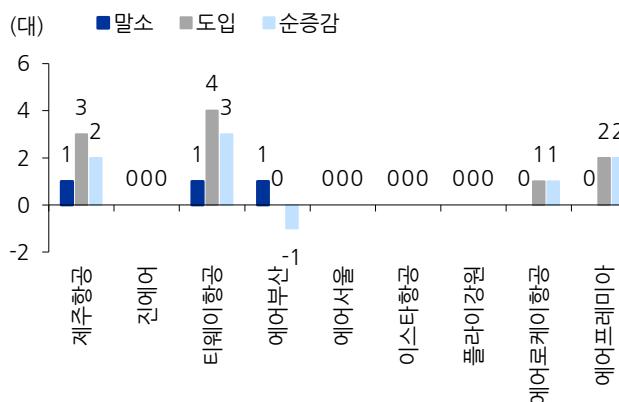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5)

[LCC 기재 도입 현황]

- 지연되던 LCC의 신기재 도입이 속속 이루어지는 중. 현재까지 티웨이항공 4대(B738 2대, B773 1대, A332 1대), 제주항공 3대(B738 3대), 에어프레미아 2대(B789 2대), 에어로케이 1대(A322)가 도입됨
- 현재 기재 보유 수는 티웨이항공 40대, 제주항공 39대, 진에어 31대, 에어부산 20대, 이스타항공 15대, 에어프레미아 7대, 에어로케이 7대, 에어서울 6대
- 티웨이 및 제주항공은 소형기에서 B737-800 기종에서 B737-8 기종으로 기종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소형기 기준 신기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점진적 증가 중

Key Chart: 2025년 LCC 기재 도입 현황



자료: ATIS, 유진투자증권

Weekly Key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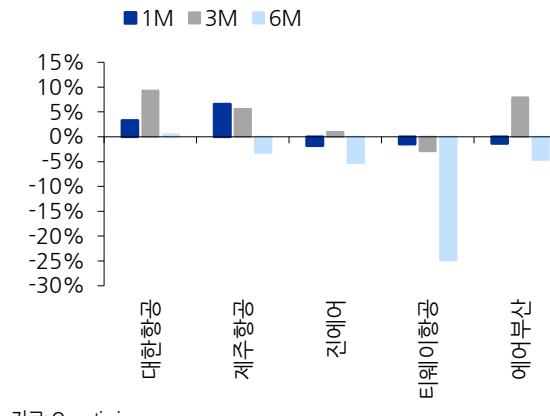
LCC 기재 도입 현황

그동안 지연되던 LCC의 신기재 도입이 이루어지는 중. 올해 상반기까지 티웨이가 4대, 제주항공 3대 등 속속 도입 중. B737-8 기단 현대화 진행 중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항공 주요 뉴스(06/30~07/06)

[여객/화물]

- 에어프레미아, 인천~호놀룰루 노선 신규 취항
- 상반기 국제선 승객 4천600만명 '역대 최고'. 日&中 주도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출발 10여 일 앞두고 인천-두바이 노선 감편
- 대한항공 조종사 '비행수당 통상임금 소송' 본격화
- 제주항공, B737-8 5호기 도입. 기단 현대화 박차
- 진에어, B777 내년까지만 운영. 소형기 중심 재편
- 티웨이, 유럽 로마-파리 노선 품질심사로 항공 안전 강화
- 대명소노, 티웨이 서울사무소 '그룹 신사옥' 편입 검토
- 에어인천, 8200억 유상증자. 통합 화물항공사 출범 시동
- 파라타항공, A330 임대 계약으로 내년 북미 취항

[기타]

- 27년 SAF 급유 의무화 앞두고 세부기준 마련 착수
- LCC, 늘어나는 항공기에 인력 채용 속도

[글로벌]

- 프랑스 관제사 파업에 유럽 하늘길 '대혼란'
- 에어아시아, 에어버스 A321XLR 70대 계약
- EU와 정상회의 앞둔 中, 에어버스 최대 200기 구매하나
- 유나이티드, 트럼프 눈독 들인 그린란드에 첫 직항 개설
- 美中 초음속 여객기 경쟁.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규제 폐지
- 미국, GE 항공기 엔진 중국 수출 제한 해제
- 中 자체개발 소형 여객기 C909 첫 국제선 운항 성공
- 일본 JTB, 하계 휴가시즌 해외여행 전년비 20% 증가
- 일본발 항공화물수출 +2%yoY, 14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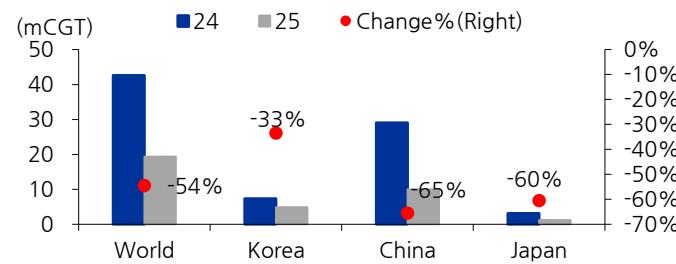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5)

[조정받는 조선]

- 지난 주, 조선업종 주가 11% 하락하며 낙폭 확대. LNGC 선가 하락 가능성 제기, 후판가 상승 압력, 환율 하락에 따른 2Q 실적 불안감,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 FID 지연 등 각종 부정적 이슈 부각되며 업종 피크아웃 우려 확산
- 국내 조선사들 5월 기준 상선 수주 목표 대비 달성을 HD현대중공업 44%/HD현대미포 43%/HD현대삼호 47%/삼성중공업 27%로 대체로 선방 중. 시기의 문제일뿐 미국발 LNGC와 가스선 외 수주 물량도 대기 중. 환율 하락 & 후판 상승 가능성 존재하는 가운데, 외주 인건비 증가 속도 둔화, 생산성 개선으로 상쇄 기대
- MSC 등 여전히 중국 선호하는 선사들도 있으나, 올해 중국 발주량 전년비 65% 감소. 한국은 33% 감소에 그침. 한국 우위인 점은 긍정적이나, 향후 중국 조선소들 공격적 선가 인하로 향후 한국 수주 둔화 및 선가 하방 압력 가능성은 지속 모니터링 필요

Key Chart: 국가별 발주량 변화(1~6월 누계)



Weekly Keyword

조정받는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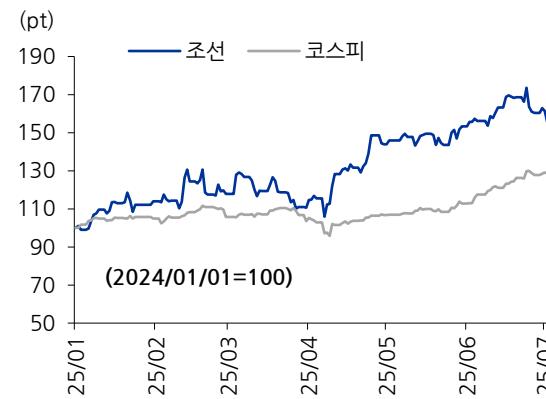
부정적 이슈 부각되면서 조선업종 주가 조정 국면. 그러나 조선업의 업황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음. 발주량도 중국 대비 선방 중. 중국의 공세적 영업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조선 주요 뉴스(06/30~07/06)

[상선/해양]

- 한화수평, 한화오션에 VLCC 1척 추가 주문. 총 3척 발주
- 인니 국영 선사 PIS, 선대 확충 계획. 韓 조선 수주 기대
- 미국 델핀, 삼성重과 상세 설계 추진. 수주 기정사실화
- 삼성重, 노르웨이발 FLNG 수주 기대. 골라LNG, 8천억 조달
- 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기타]

- 美 조선/해양 전문가들, HD현대重 방문해 조선 역량 확인
- 韓, 6월 조선 수주량 세계 41% 차지. 中과 격차 좁혀
- HD현대, 인도 최대 코친조선소와 포괄적 협력 MOU
- HD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찬성 64.04%
- 삼성重, 베트남 국영 PVSM과 탱커 4척 공동 건조
- 케이조선, 그리스서 '1360억원' 규모 유조선 2척 수주
- LS마린솔루션, 터키기예에 초대형 HVDC 포설선 발주
- 부산銀, 민간은행 처음으로 HJ중공업에 1.6억달러 RG발급

[글로벌]

- 美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본격화. 수리조선소 5곳 '합병'
- 세계 최대 中 조선회사 자회사 2곳 합병 허가
- 인도, 스리랑카 최대 조선소 720억원에 인수
- 미국 델핀 미드스트림 2025년 가을 투자 확정 앞둬
- 유럽 에퀴노르, LNG 운반선 4척 건조 사업자 물색
- 미쓰비시조선-MOL, 액화이산화탄소 및 메탄올운반선 개발